

安全點檢의 方向과 그 效果

李 鍾 律

〈點檢 2部 課長〉

1. 序 論

70年代 初期의 많은 人命과 財産을 빼앗아 간 大然閣 火災 等の 大火災는 政府 및 關聯機關으로 하여금 共同으로 從來의 消極的이고 近視眼的인 豫防活動을 止揚하여 보다 積極的인 防災活動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하였고, 73年 2月 特別法을 制定·公布하여 防災活動의 民間機構를 設立한지 어언 2年半의 歲月이 흘렀다.

우리는 그간 주어진 任務에 誠實과 奉仕精神으로 最善을 다하고 있으며 今年 1月 부터는 補償業務도 兼하는 綜合 特殊保檢 業務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受任 任務의 莫重함에 비해 이제 겨우 3살이라는 나이에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未洽한 點도 없지 않고 制度的인 缺陷도 생겨 여러차례 治療를 받았다.

그러나 散積되고 나날이 增加되는 많은 課題를 풀기에는 많은 難關이 予想되므로 이에 對備하기 위한 方向 模索을 위해 未來를 向한 私見을 써 볼까 한다.

2. 現 況

우리나라의 現代成長 過程을 두 段階로 크게 나누어 보면 60年代의 跳躍의 時期와 70年代의

安定을 바탕으로 한 成長의 過程으로 大分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期間동안 年間 平約 10%에 가까운 括目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 하였고 이에 따라 火因의 源泉이 되는 에너지 消費量도 크게 增加되어 年間 約 12% 程度의 趨勢로 增加되고 있다. 이는 곧 火災發生率과 罹災被害의 急增을 予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對備策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火災發生統計을 살펴보면 60年代에는 發生件數로 15%, 人命被害에서 23%, 財産으로 40%의 急上昇勢를 보이고 있으나 70年初의 大火以後 豫防消防活動의 強化와 鎮壓消防裝備의 補強 등으로 若干 둔化되고 있지만 件當 罹災被害規模가 큰 것으로 그 特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高度로 發達하는 物質文明은 日常生活에 必要한 여러가지의 便利한 製品을 廉價로 供給해 주어 우리 生活을 豐饒하고 安逸하게 해 준 반면 많은 人命을 잃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特徵이다. 이의 代表的인 경우가 所謂 “비닐”이라고 불리우는 合成樹脂 製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燃燒時 濃煙과 毒性가스를 發散하여 避難障礙를 일으키거나 人體에 致命的인 影響을 줄 뿐만 아니라 鎮火活動에도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73年 7月以後 지금까지 點檢한 安全點檢 結果 分析表에 의하면 現存 建物の 大部分이 法이 要求하는 必須基本施設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實情임은 豫防消防活動이 微微했던 60年代에 그 原因과 結果에 一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이들 建物들의 改修進行狀態가 極히 不振하다는 것이다. 勿論 既中에는 建物構造의 一部 또는 全部 換어 야 하는 隘路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源泉的인 것은 關係人的 認識不足이 큰 原因이며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다면 改修에 所要되는 財政的인 負擔이라고는 볼 수 있다. 特히 是正에 必要한 信賴度 높은 諸設備의 供給과 良識있는 設備業者의 不在는 現時點에서 큰 問題가 되고 있다.

3. 問題點과 對策

一般的으로 安全事故의 原因을 大別해 보면 不安全條件이나 不安全行爲, 이 두 가지에 基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細密하게 分析해 보면 이들 두가지의 複合要因이 大部分이다. 그 加重值를 考慮하여 原因別火災發生統計를 이들 두 要因으로 區分하여 보면 前者가 約 40%, 後者가 約 60%로서 오히려 不安全行爲쪽이 더 큰 比重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是正해 나가는데는 前者의 경우가 그 實効를 早期에 擧揚할 수 있다는 點에 豫防活動의 焦點이 된 것이다. 勿論 一朝一夕의 效果에 執着하여 大를 소홀히 하는 愚를 범하는 失手를 止揚하고 效果的인 竝行으로 꾸준히 改善되어야 할 課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 두 要因을 改善하기 위한 方案을 現行 業務內容과 하나 하나 比較 檢討해 볼까 한다.

가. 技術의 定立

지금 우리들이 點檢基準으로 삼고 있는 關係法令(消防法, 電氣事業法 및 電氣設備技術基準,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建築法等)은 現存 大部

分의 技術法令과 마찬가지로 學術的인 바탕이 없이 마치 假建物 形態여서 隨時로 헛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아 이를 執行하거나 活用하는 關係者들에게 混亂을 招來하고 있으며 이들 法令間의 協調事項에 對한 有機的인 紐帶缺如로 헛점을 드러내거나 蹉跌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特히 消防關係의 경우 그 內容의 大部分이 技術部間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研究·試驗所의 設立이 要求되고 있으나 이에 對한 對策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다.

더우기 科學의 發達과 함께 火災의 類型도 多變하여 이에 따른 對備의 템포를 促求하고 있으나 쫓아가기도 急急한 點은 豫防消防의 큰 問題點이 되고 있다. 또 法改正에 따라 追加設備의 適期 生産供給이 되지 않고 있는 點은 많은 外資를 들여 輸入해야 하는 問題도 있지만 粗惡品을 만들어 社會秩序를 어지럽히는 問題는 時急히 改善되어야 겠다.

그러므로 새로운 防災設備規制 事項을 追加하는 國內生産與件과 製品의 規制方案을 綿密히 檢討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既存建物에 미치는 영향 등을 充分히 考慮하여 혹 構造部位의 大修繕이 豫想될 때에는 이에 따른 對替解決 方案도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點은 甚案하여 獨自的인 基準이 만들어져야 겠으며 아울러 點檢 manual과 設備基準을 만들기 위한 技術的인 土臺를 構築하기 위한 試驗研究所의 設立이 時急하다고 본다.

또 難題의 解決을 위한 技術基準·審議小委員會를 構成하여 防火技術諮問委員會와 連結시켜 宿題을 푸는 方法도 생각해 봄직 하다.

나. 資質向上과 活用

4年制 工科大学을 卒業하고 所定の 短期교육을 받았으나 大學教科 課程에 없는 防災는 거의 技術的인 바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거나 그간 國內 技術中 이 分野는 바탕이 없는 不毛地帶여서 個人的인 資質向上이란 기대 할 수 없

는데다 주어진 業務의 過重은 이제 우리를 우물안의 개구리로 變身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해야함은 勿論 防災機關으로서의 技術蓄積을 위해서는 遠視眼的인 長期訓練計劃이 樹立되어 補修教育和 海外研修訓練, 國內外委託教育等を 實施하고 內的으로 研究·努하는 風土가 造成되어 技術의 土着化에 全力投球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養成된 要員은 國家技術資格制度를 통한 技士資格을 賦與하고 人力의 活用을 통한 制度改善과 豫想되는 業務量 擴大에 伸縮性있게 對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다. 保檢業務와의 紐帶強化

現在 一部支援하고 있는 既存業務內容을 效果的으로 活用하게 하기 위해서는 諸 基準의 不合理한 點과 모호한 點에 對한 細則을 만들고 서로의 業務 限界를 明確히 하여 正確하게 作成된 報告書에 의해 料率과 價額이 算定되고 最大豫想 損失額과 定常豫想損失額이 評價되어 危險負擔에 對한 出再與否도 決定되는 날이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付保에 對한 明確한 基準과 價額評價 基準이 確正되어야 겠으며 이에 따른 業務擔當部署도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作成된 報告書는 罹災發生時 罹災算定의 重要한 基礎資料가 될 것이며 補償業務 逐行의 時間을 短縮시켜 주게 되며 公信用은 높혀 줄 것이다.

라. 資料의 效果의 管理

諸 基準에 의해 正確히 作成된 資料는 中央資料室에서 一括 保管하고 必要에 따른 複寫 및 貸出을 통해 保險舉收의 資料로 혹은 施設改修를 위한 技術指導의 資料로 活用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集計·分析한 統計資料는 그 計數의 一貫性이 豫想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資料는 行政機關의 防災對策 樹立의 根幹이 될 것이다.

또 이 中央資料室의 一括保管 管理는 保安問題를 쉽게 解決해 주며 不必要한 文書循環을 抑制하여 物資節約에도 效果가 기대된다. 한편 永久化되거나 過去資料는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保管하거나 電算으로 記憶시켜 두는 方法도 業務量이 많아 졌을 때 必要 할 것으로 豫想된다.

마. 積極的 改善誘導

點檢에 따른 改善必要事項의 效率的인 早期改修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先行해야 할 일은 必要性 說得과 改修를 위한 正確하고 科學的인 處方이 提示되어야 할 것 같다. 從來 法이나 規定條文의 나열을 脫避해서 가장 적은 經費로 最大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方法의 提示는 우리들의 義務이며 本來 目的에 副應하는 能率的 改善誘導 方法이라고 본다. 勿論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個人的 資質과 設備基準이 附隨되며 아울러 諸設備의 規格化 및 信賴度 增進은 必的인 課題가 될 것이다. 또 이를 設備하는 設備業者의 不誠實에서 惹起되는 不實工事를 一消하기 위한 資格規制는 早速한 時日 內에 實現되어야 겠으며 現存 零細消防器機 生産業者의 育成과 새로운 製品開發을 위한 市場確保와 保護育成 政策도 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또 新築建物에 對한 竣工同意 業務는 勿論이며 既存建物의 未備點 補完을 위한 過敢한 行政措置와 함께 이에 所要되는 資金支援方案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管理體制가 잘 되어 建物이 깨끗하거나 設備가 잘된 경우 稅制面의 課標準額이 높은 것으로 因해 忌避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點을 甚案 防火設備部分에 對한 稅制上의 惠澤도 考慮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是正된 建物は 徹低한 確認點檢을 통해 그 改修適正與否를 點檢하고 未備된 建物에 對한 行政處理가 뒤따라야 하며, 保檢側面의 誘導方法을 幅넓게 適用하여 改修에 對한 補償으로 料率割引惠澤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다. 不完全行爲의 改善

지금까지 提示된 方案은 모두 不完全施設에 의한 偶發的 事件發生의 豫防을 위한 改善方法이었지만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約 60%의 比率로 나타내고 있는 管理側面의 改善을 위한 努力은 長期的 計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째 方法은 防火管理制度를 強化하여 이들을 活用하는 方法이다. 安全點檢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建物內에 居住하고 있는 個體에 對해서는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며 防火에 따른 諸般設備과 教育 訓練도 擔當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잘 活用하는 方法은 最善의 豫防對策이 될 것이다. 現行制度는 이들에게 많은 義務를 賦課하고 權限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大部分이 兼職으로 時間에 쫓겨 諸機能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一部를 除外하고는 資格水準이 業務의 莫重함에 비해 未洽함을 否認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안다. 그러므로 資格要件의 強化와 함께 補修教育을 義務화 하고 現行 消防設備士制度를 活用하는 方案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消防設備技士 二級의 경우. 整備 및 修理가 資格基準에 따른 業務限界임을 甚案하면 防火管理者로서의 任務의 一部分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두번째 方法은 凡國民의인 警火思想의 鼓吹와 火災豫防의 生活化를 들 수 있다. 外國의 경우 어린이때 부터 家庭에서나 學校에서 生活教育으로 배우고 있으나 우리는 전혀 配慮하지 않고 극히 最近 年例行事로 포스타·포어 등을 통한 弘報에 그치고 있음은 實로 안타까운 일이다.

當 協會에서는 매스컴·映畫·TV 등을 통해 直間接으로 弘報活動을 展開하여 相當한 效果를 올리고 있으나 보다 組職的이고 計劃的 弘報活動의 아쉬움이 남아 있다. 今年에 製作한 映畫의 경우 效果的인 面에서는 다른 方法에 비해

越等하나 그 對象이 局限되고 器材와 人力不足 등으로 要求에 充分히 副應하지 못한 점은 長期的 眼目으로 再檢討되어야 하겠으며 行政機關에서도 火災豫防強調期間동안에 千編一律의인 啓蒙活動은 큰 實効가 없으므로 이에 對한 根本策이 어렵다. 消防訓練의 경우도 大部分이 形式的이고 극히 一部만 參席하므로 實際. 事故가 發生되었을 때 消防器機로 鎮火가 充分히 可能한 初期火災가 大火로 擴大하는 경우가 많음을 國民 모두에게 責任지워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弘報擔當員되어 認識과 說得으로 일깨우고 警覺心を 고취시켜 火災없는 福祉國家 建設에 매진하며, 協會는 이를 위한 制度的인 뒷받침으로 訓練센터를 設立 管理者 養成과 함께 不完全行爲 除去를 위한 努力을 게 울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맺은말

지금까지 2年 6個月間 豫防活動의 一線 點檢員으로 體驗한 여러가지 問題點과 주위 동료의 도움을 얻어 생각하는 대로 적어 보았으나 時間에 쫓기다 보니 當初 計劃했던 方向과 多小 빗나간 듯하여 아쉬움이 있으나 表現力이 不足한 본인으로서 最善을 다했다는 點으로 滿足해 본다. 본래는 協會 未來像을 그려 볼 豫定이었으나 準備不足과 能力不足으로 要求에 副應하지 못했음을 謝過드리며 次後 機會가 있으면 細部 方向을 提示해 볼까 한다.

마지막으로 添言해 둘 것은 한마디로 處女地라고 할까, 保險이나 消防側面에 아직도 空地가 많이 남아 있다는게 젊은 우리에게 꿈을 設計할 수 있는 希望을 안겨 주고 있는 것 같다. 이 꿈을 꿈으로 버리지 말고 實現의 世界로 끌어나가는 馬夫가 되어 우리 모두 힘차게 끌고 밀어나가야겠다.